

영광군, 다양한 출산정책 인구 증가 '절반의 성공'

상반기 결혼 42명·출생아 89명 증가



영광군은 2019년 상반기 결혼·출산 통계 결과 전년 대비 결혼 42명, 출생아 89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6월에는 사망 40명, 출생 45명으로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많았다.

2019년 상반기 전남도 시·군별 인구 증가를 보면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순천시와 나주시 2곳뿐이고 나머지 20개 시·군 중 영광군은 두 번째로 인구 감소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광군이 올 1월 조차개편을 통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다양한 맞춤형 인구 출산 정책을 추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군은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3,000만원, 최고 3,5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 시책

을 펼쳐 상반기 중 출생아수 292명으로 전남 군 단위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구비전 선포식,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기관사회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전 읍면까지 확대 시행하고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전개했다.

영광군은 하반기에도 맞춤형 인구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7월부터 인구 늘리기 전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쓰레기봉투 및 일반세대 전입 시에는 10만원, 기업체 임직원은 15만원, 학생과 군 장병에게는 20만원의 지급(전입 후 6개월 경과 후 신청 시)하고 외국인 등록 시 50만원의 정착지원금 신설 및 영광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하여 군 전입과 빠른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40년까지 인구정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인구정책 군민토론회,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도 지속 운영한다.

영광=서희연 기자

여름 밤 낭만 가득한 '담양 별빛·달빛여행' 참가자 모집



담양군은 담양의 깨끗한 밤하늘을 만끽하며 인문학 명사와 함께하는 '담양 별빛·달빛여행'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도로 별빛·달빛여행' 프로그램은 죽녹원

정문 봉황루에서 시작해 담양의 인문학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대숲 산책로를 거닐고, 영산강문화공원에서 플라타너스 '별이 쏟아지는 밤길'과 함께 낭만 가득한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군 관계자는 "담양 인문학 명사가 전해주는 담양의 숨은 이야기와 여름 밤을 수놓는 별과 함께하는 음악은 지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회당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5천원이다. 참가신청은 행사일 이를 전까지 담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damyang.go.kr)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영산강문화공원 플라타너스 '별이 쏟아지는 밤길'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 8권역 '죽녹원 일원 야간조명 콘텐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핫 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미세먼지 저감 위한 '노면청소차' 본격 운행

장성군이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여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 노면청소차' 운영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2억2천5백만 원을 들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8.5톤 '도로 재비산먼지 노면청소차'를 구입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로 재비산먼지 노면청소차'(이하 노면청소차)는 주행차량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

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흡입해 도로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주는 차량이다.

장성군이 구입한 노면청소차에는 진공흡입장치, 회전 브러시 등 다양한 장비가 갖춰져 있어 도로의 상황에 맞는 청소가 가능하다.

또한 습식필터 적용으로 노면상태에 관계없이 청소가 가능하고, 도로의 중앙부와 갓길에 쌓여있는 먼지, 생활쓰레기, 낙엽 등 이물질 흡입력이 커 비산먼지 감소에 효과적이다.

군은 지난 5월 노면청소차를 구입한 후 안전사고 예방 및 운전 숙지를 위한 자체 교육을 완료했다.

현재 장성읍 시가지 시험운행을 마쳤으며, 먼 시가지까지 운행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면청소차 운영으로 군민의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토요시장, '친절과 청결'로 재도약

개장 14주년 행사...고객 감사 이벤트 풍성



장흥토요시장이 개장 14주년을 맞아 6일 고객 감사 이벤트를 열었다.

이날 오전 시작된 기념행사는 식재료 선물놀이 공연, 기념식,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채워졌다.

기념식에서는 토요시장 발전에 공헌한 토요시장 상인 김춘례 씨와 이윤 씨가 군수표창을, 김수라 씨와 이병수 씨가 상인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상인회장 감사패를 받은 이병수 씨는 골이어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장흥군에 기탁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어진 축하공연에는 그룹 백두산의 리더로 유명한 가수 유현상 씨를 비롯한 3명의 초청가수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대행사로는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향토음식 무료 시식회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TV, 자전거, 장흥완우 등 푸짐한 상품이 걸린 경품추첨도 이어졌다.

장흥토요시장은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된 2005년 지역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국 최초 문화관광형 토요시장'으로 개장했다.

2015년 한국관광의 별, 201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흥한우살점을 비롯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지역특산품을 앞세워, 연평균 매출 1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전국 최고의 성공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장흥군 장흥군은 "토요시장 관광객과 지역민이 어우러진 지역 최고의 문화공간"이라며, "군에서 시장 시설 개선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장상인들이 친절과 청결을 책임진다면 토요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군, '화순서 한 달 살기' 청년캠프 시작

화순군이 지난 3일 동북면 블리스펜션에서 '화순서 한 달 살기' 청년캠프를 시작했다.

서울·강원·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 11명은 다음달 1일까지 이곳에 살면서 화순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에 위탁 운영하는 청년캠프에는 숙박 배움, 화순 알아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 화순의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화순의 청년, 귀농·귀촌인을 만나는 소통의 시간을 운영한다. 도시의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진 청년들이 손가락, 바지 등을 직접 만들어 보며 의식주 자립 활동도 체험할 예정이다.

군은 '한 달 살기' 이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창업 교육, 창업 농자금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캠프는 힘과 배움 그리고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함평군, 미니수박 시범재배...新소득작물로 발전 기대

함평군이 신(新)소득작물로 육성하고 있는 '미니수박'이 올해 첫 출하한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3월 미니수박 재배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임대면 송노리 한 농가에서 이날부터 미니수박을 본격 출하했다.

기존 수박의 4분의 1크기인 미니수박은 보통 시설 하우스 내에 터널

처럼 덩굴을 뻗어 공중에 열매가 달리는 방식으로 재배된다.

한 주당 3~4개까지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크기가 작지만, 껍질이 얇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적고 좋은 육질에 높은 당도까지 자랑하면서 최근 간편 간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농가소득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미니수박 비닐하우스 1동당 소득은 일반 수박보다 높은 500~600만 원 수준이다.

군은 올해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장분석을 통해 개선·보완점을 발굴하고 내년도 신(新)소득작물로 본격 육성할 방침이다.

함평=김평촌 기자

나주시, '양과 소비촉진 운동' 전개

나주시는 최근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올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과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나주 양과 소비 촉진 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김석기 농협전남본부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 농·축협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1t트럭 8대 분량의 양파(20kg) 약 1,000장을 출하했다.

시는 양과 재매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과 재배 농가를 위해 시청, 금라회(관내 기관단체장 모임), 혁신도시 이전기관, 농·축협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양과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시는 분청 및 읍·면·동 직원들에게 양파(20kg) 3,331을 금라회에 180명, 농·축협 임·직원들이 1,000장을 구입했다.

특히 다시면은 지난 2일 다시농협, 농협나주시지부 등과 연계해 서울 동대문구, 종로구, 남동구, 논현1동에 양파(10kg) 5.013톤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